



# “이번주, 100홈런 갑니다”

기회마다 맹활약 KIA 4번 타자 나지완

한화전 두경기 연속 홈런... 100홈런 -2  
 침착한 승부 눈길 최근 7경기 타율 6할

KIA '4번 타자' 나지완의 근거 있는 자신감, 이번에도 통할까? 나지완에게는 가시밭길 같은 4월이었다.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된 침묵으로 4월까지의 타율은 0.238에 머물렀다. 한방으로 감을 잡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던 무기력한 방향이었다. 군입대까지 미루고 벼랑 끝에서 맞은 시즌이었기에 나지완의 부진은 더 크게 보였다. 본인에게도 초조한 4월이었지만 나지완에게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다. 부진이 계속됐던 지난 4월 말 나지완은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는가. 투수들에게 정말 얼굴을 못 들겠다”고 미안한 마음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있다. 감독님께서 많이 응원 해주시고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과 평균 성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자리를 찾을 것이다”고 조심스레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자신의 매신저 문구도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적어놓았다. 말했던 대로 나지완이 4번 타자로 돌아왔다. 지난 주말 한화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내며 첫 싸늘이 승의 주역이 됐다. 통산 100홈런에는 두 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5월 한달 7경기에서 6할 타율을 찍었다. 25타수 15안타 2홈런 14타점. 앞서 4월까지 24경기에서 0.238의 타율로 11타점을 올리는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더욱 놀라운 성적이다. 무엇보다 타석에서의 침착한 승부가 눈에 띈다. 4월까지 11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데 그쳤지만 삼진은 20개를 적립했다. 볼에 쉽게 방망이가 나가면서 빈번히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서곤 했다. 5월에는 5볼넷 5삼진을 기록하고 있다. 나지완은 앞을 보고 있다. 후회 없는 한 시즌을 위해 멀리 앞을 보겠다는 얘이기도 하고, 타격 포인트 변화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나지완은 “사실 그동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었다. 지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고 포인트를 앞에 두고 타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라갈 타율은 올라간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나지완. 또 다른 얘기도 했다. 부정적인 전망과 달리 팀 성적에 대해 낙관론이었다. 당시 나지완은 “올 시즌 우리 팀을 하위권에 분류하는 의견들이 많다. 또 지금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내 생각은 다르다. 올 시즌 선수단 사이에 뭔가 끈끈한 것이 있다. 내부 분위기가 좋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한국시리즈의 사나이로 우승의 현장도 있어왔고, 끝없이 추락하는 팀을 지켜보기도 했던 7년차. 누구보다 팀을 잘 아는 나지완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 기본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프로야구 전망대

## KIA 선발진 재정비 “진짜 싸움 이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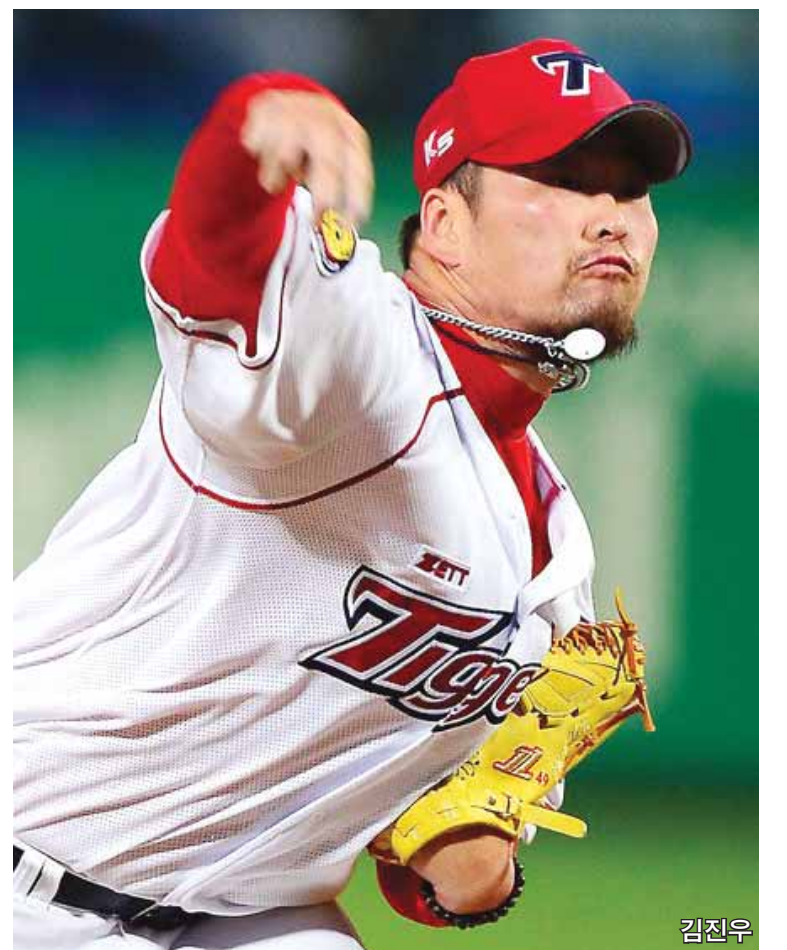
싸늘이 승으로 분위기를 살린 '호랑이 군단'이 진짜 실력을 점검 받는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주 휴식기 이후 치른 주말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연전 싸늘이에 성공했다. 올 시즌 첫 스프링이 지난해 6월 광주 NC전 이후 약 11개월 만에 거둔 3연승이다. 한껏 분위기를 살린 KIA는 이번 주 난적과의 승부를 벌인다. 주중 2위 NC와의 원정경기에서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삼성과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악재와 호재가 겹쳤다. 공격 상승세의 원동력이었던 김주찬이 손가락 부상으로 빠지게 된 것은 악재. 시범경기에서 정장이 부상을 당했던 김진우가 14일 시즌 첫 출격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호재다. 마운드는 든든하다. 김진우의 복귀로 선발진이 완성됐고, 심동섭이 정상적으로 1군에 자리를 잡으면서 유일했던 필승조 김태영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마무리 어센시오도 굳건하다. 고민은 타선이다. 개막 엔트리와 비교해서 김주찬과 이

김진우 복귀...NC·삼성과 6연전 내일 출격  
 김주찬 손가락 부상 팀 이탈...타선은 '비상'  
 범호(양귀리 통증), 김선빈·김민우(이상 햄스트링)등 4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 고영우·강한울 등 신진급 선수들의 분전, 알토란 같은 박기남의 활약이 그나마 위안. 그리고 중심타선에서의 필과 나지완의 파괴력이 위기의 타선을 지탱하고 있다. 까다로운 상대와의 승부를 위해 선동열 감독은 투수로 테이션에 변화를 줬다. 지난 11일 한화전 선발로 준비시켰던 좌완 임준섭을 13일 선발로 옮겼다. 임준섭은 NC와의 첫 경기에서 이어 18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두 차례 출격한다. 좌타자들과의 승부가 많은 상대와의 승부를 위한 묘수다. 3연승에 성공한 6위 KIA는 2위 NC와는 4경기, 3위 삼성과는 2.5경기, 5위 두산과 1.5경기 차를 보이고 있다.

■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12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넥센	34	21	13	0	0.618	0.0
2	NC	35	21	14	0	0.600	0.5
3	삼성	30	17	13	0	0.567	2.0
4	롯데	33	17	15	1	0.531	3.0
5	두산	34	18	16	0	0.529	3.0
6	KIA	31	15	16	0	0.484	4.5
7	SK	32	15	17	0	0.469	5.0
8	한화	29	11	18	0	0.379	7.5
9	LG	34	10	23	1	0.303	10.5

구색을 갖춘 마운드의 힘으로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서 동을 걸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진우

## 한국야구 미래 본다

프로야구의 미래가 펼쳐진다.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겸 제68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가 12일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목동구장과 잠실구장에서 계속된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34개팀이 왕중왕전 우승컵을 놓고 벌이는 열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라권 우승을 차지한 광주일고와 광주 동성고, 화순고가 출사표를 던졌다. 우승팀은 물론 큰 무대에 서는 '유망주'들의 움직임이 관심사다. 프로무대를 두드러진 특급 선수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동성고 3루수 김민혁(우투우타)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대이다. 189cm·96kg의 타고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한 초고교급 파워로 우타자 1순위로 꼽힌다. 주말리그 전반기 군산상고와의 경기에서는 라이너 타구로 무등경기장 담장을

넘기는 괴력을 발휘했다. 파워와 함께 부드러움까지 겸비하면서 '리틀 이대호'로 통한다. 종종 투수 글러브도 쓴다. 동성고 마운드에는 우완 방건우가 있다. 130km 후반 대의 공을 보유한 방건우는 침착한 승부와 제구로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타격도 수준급이다. 당찬 2학년 배터리도 있다. "게임을 할 줄 안다"는 평가를 받는 언더 투수 김홍빈과 지난해부터 안방 마님으로 활약하고 있는 포수 신범수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페이스로는 광주일고 채지선의 기세가 뜨겁다. 채지선(우투좌타)은 투·타에서 모두 수준급 실력을 갖추고 있다. 145km가 넘는 강속구를 보유한 채지선은 빠른 발과 홈런을 칠 수 있는 파워까지 겸비했다. 스카우트의 시선도 투수 채지선과 타자 채지선으로 양분됐다. 184cm·87kg의 송동욱도 든든한 하드웨어와 장래성에

황금사자기·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34개팀 열전  
 화순고 1회전 탈락...14일 동성고·15일 광주일고 출전

서 좋은 점수를 받는 광주일고의 안방마님. 수비 기본기가 탄탄하고 주장으로서의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 추후했던 타격도 요즘 상승세다. 좌완 한두솔은 뛰어난 제구력, 우투좌타인 정다운은 아마추어 최고의 빠른 발로 눈길을 끈다. 12일 신일고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한 화순고에도 스카우트들이 주목하는 선수가 있다. 에이스 김정민은 182cm·68kg의 마른 체격이지만 140km가 넘는 공을 뿌리며 주무기 슬라이더 및 체인지업, 커브 등의 변화구를 구사한다. SK 투수 김정민의 진동생으로 현재 야구인이기도 하다. 중견수 이문호는 뛰어난 주력은 물론 방망이에도 힘이 있다. 팀의 중심타자이자 투수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화순고가 1회전에서 탈락한 가운데 동성고와 광주일고는 14일과 15일 각각 용마고와 청주고를 상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윤석민 못잊을 '첫 승'

트리플A 7번째 등판만에...동료들, 고급 위스키 선물  
 6전7기의 윤석민(볼티모어)이 팀 동료에게 감동적인 첫 승 선물을 받았다. 미국프로야구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볼티모어 산하)에서 뛰고 있는 윤석민은 지난 10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피츠버그 산하)와의 경기에서 5이닝 5피안타(1홈런) 3실점을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어렵게 첫 승을 신고한 윤석민은 동료로부터 고급 위스키인 '조니워커 블루라벨' 한 병을 선물 받았다. 단순한 술 선물이 아니었다. 동료들은 일일이 포장지에 자신의 사인을 남겨 윤석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윤석민의 선발날마다 실책 연발 속 타선의 침묵을 이어갔던 이들의 미안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이날 윤석민은 모처럼 공·수 도움을 받았다. 좌익수 롬바르도치가 초반 깔끔한 수비로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장단 23안타로 10-7을 만들어줬다. '감격 선물'에 윤석민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선물 사진을 올리고 영어와 한국어로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석민은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스피드와 평균자책점 관리에 신경쓰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